

마약 청정 광주·전남 '백색 중독' 급속 확산

광주지검, 전직 교수·경찰에 가정주부까지 35명 적발

가상화폐·SNS 등 이용 교묘

전직 마약수사 경찰관과 교수, 영어강사, 가정주부 등 마약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광주·전남이 빠르게 백색가루에 중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 루트도 1대1 직거래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노출되지 않는 등 교묘해지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손석천)는 지난 7~10월 1달간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35명을 적발, 이 중 1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마약 사범의 연령대는 20~60대로 다양하고, 계층도 전직 경찰·교수·영어강사·가정주부 등 사회계층에서 주부까지 넓게 퍼져 있다.

특히, 구속자 중 광주·전남 거주자는 11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검에서 구속한 마약사범 총 16명 중 광주·전남 거주자가 1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도 '마약 청정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인터넷·SNS 등에서 마약 관련 정보를 얻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유명 학원가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한 오모(23)씨는 유학시절에 마약을 접했다가 귀국했지만 끊지 못했다. 오씨는 영어강사로 재직하며 지난 7~8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사이트 접속 내역이 남지 않는 접속프로그램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신종 루트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활동하는 박모(47)씨도 2014년

■ 광주·전남 마약사범 변화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손님인 운모(46)씨 등 주부 2명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다.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경찰관 신모(62)씨는 수사를 하다가 마약에 빠졌다. 마약 전과가 있는 신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의 모 대학 방송영상과 교수였던 전직 교수 최모(49)씨도 언더그라운드 가수와 어울리며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박중독자 이모

(33)씨는 도박에 이어 필로폰까지 상습 투약하다가 구속됐다.

손석천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광주·전남은 그동안 마약류 청정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화이트칼라, 사회지도층, 가정주부까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마약 공급·투약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양산제 '꽃단장' 광주시 북구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9일 북구 양산동 본촌근린공원에 자리한 양산제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꽃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중교통 증편·비상차량 투입 수험생 수송

입실 임박 112·119 신고시 순찰차 출동 시험장 안내

광주시 수능일 종합대책

광주시는 오는 12일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학수학능력 시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수험생 편의와 교통 소통을 위해 시험 당일 관공서와 출차출입기관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시와 각 자치구는 이날 실시간 교통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능특별교통대책상황실(대표전화 613-4022)을 운영한다.

시는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험장 이동을 돕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험생 긴급수송반을 편성 운영한다.

관용차량 16대, 시 직원 개인차량 78대 등 총 94대 188명을 버스승강장 등 시내 주요지점 47곳에 투입해 비상수송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시험장으로 무료로 수송해 줄 계획이다.

또 입실 시간에 임박한 수험생들이 112, 119로 신고하면 순찰차와 구급차가 출동

해 시험장까지 수송한다.

광주소방본부는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해 당일 119구급차를 이용해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시험 종료 후 자택이나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 '119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 사전 전화 예약하면 된다.

듣기시험 시간대인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25분간 광주공항 민항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군 전투기는 시험 당일 훈련이 중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2 해질 05:21
해짐 17:31 달짐 16:51

푸른 가을 하늘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맑음 | 10/17 | 보성 | 맑음 | 7/17 |
| 목포 | 맑음 | 10/15 | 순천 | 맑음 | 10/18 |
| 여수 | 맑음 | 11/17 | 영광 | 맑음 | 9/15 |
| 나주 | 맑음 | 9/17 | 진도 | 맑음 | 10/16 |
| 완도 | 맑음 | 11/16 | 전주 | 맑음 | 8/16 |
| 구례 | 맑음 | 7/18 | 군산 | 맑음 | 8/14 |
| 강진 | 맑음 | 10/16 | 남원 | 맑음 | 7/15 |
| 해남 | 맑음 | 9/16 | 홍산도 | 맑음 | 11/14 |
| 장성 | 맑음 | 7/16 | | | |

◇바다 날씨

| 시해 | 남부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앞바다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0.5~1.5 | |
| 면바다 | 북서~북 | 2.0~3.0 | 북서~북 | 1.0~2.0 | |
| 남부 | 앞바다 | 북서~북 | 0.5~1.0 | 북~북동 | 0.5~1.0 |
| 서부 | 면바다(동) | 북서~북 | 1.0~2.5 | 북~북동 | 1.0~2.5 |
| | 면바다(서) | 북서~북 | 1.5~3.0 | 북~북동 | 1.0~2.5 |

◇돌매

| 목포 | 밀물 | | 썰물 | |
|----|-------|-------|-------|-------|
| | 01:01 | 08:21 | 06:26 | 01:50 |
| 여수 | 13:33 | | 14:20 | |
| | 08:21 | 20:19 | 18:52 | 01:50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주의 |
| 자외선 | 보통 |
| 산불 | 낮음 |

◇주간 날씨

| 11(수) | 12(목) | 13(금) | 14(토) | 15(일) | 16(월) | 17(화) |
|-------|-------|-------|-------|-------|-------|-------|
| ☀ | ☀ | ☁ | ☁ | ☀ | ☀ | ☁ |
| 8/20 | 10/18 | 10/16 | 12/16 | 11/17 | 10/17 | 11/16 |

'뇌졸중' 34% 여름·늦가을 발생

60~70대 57%...초기에 병원 빨리가야 예후 좋아

전남대병원 최근 5년 분석

뇌졸중 환자의 발생이 겨울보다 오히려 환절기인 늦가을이나 여름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 40대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환자 10명 중 3.4명이 늦가을 또는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와 70대 연령층이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원)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뇌졸중 환자 1만 7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1년 중 일교차가 큰 늦가을 환절기인 10·11월에 1873명, 낮 최고기온이 높은 7·8월에 1822명으로 두 기간 중 발생한 뇌졸중 환자가 전체의 34%에 달했다.

1년 중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아 혈관계 환자들이 가장 주의하는 시기인 12·1월 중 환자는 1763명으로 집계됐다.

5년간 월별 환자 수는 1월 865명, 2월

856명, 3월 872명, 4월 908명, 5월 863명, 6월 911명, 7월 920명, 8월 902명, 9월 884명, 10월 969명, 11월 904명, 12월 898명으로 집계됐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갑자기 뇌 기능을 못하게 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으며 단일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이다.

이번 분석에서 연령별로는 70대(371명)와 60대(2395명)가 전체 뇌졸중 환자의 절반이 넘는 57%에 달했으며, 이어 80세 이상(2403명)·50대(1466명)·40대(502명)·30대(158명)·20대 이하(110명) 순으로 나타나 뇌졸중이 고연령 질환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하지만 2010년 81명에서 2014년 134명으로 늘어난 40대는 최근 5년세 65%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를 요하는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최근 5년세 뇌경색의 치료 시간을 40분(2010년)에서 30분으로 무려 10분이나 단축시켜 급성기 뇌경색 환자들의 예후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A 2말 40kg 40L B 1말 20kg 20L C 1.5말 15kg 15L D 3말 60kg 60L E 2말 40kg 40L F 1말 20kg 20L G 0.5말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179

호남지방통계청 2015 Census

2015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의 내일에 국민의 말씀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입니다.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대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수립에 활용됩니다.

-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 >>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분석
-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등

함께해요

주관 ▶ 통계청 실시 ▶ 지방자치단체 방문면접조사 ▶ 11.1~11.15